

# 史鐵生 小說論

李惠任\*

##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장애인 모티프'의 형성 배경과 그 의의
3. '과정론적'이상주의 추구
4. 숙명의식, 그리고 초월과 승화
5. 마치면서

## 1. 들어가면서

그는 잔디에 얼굴을 대고는 하늘 가득한 저 총총한 별들도 이 지구처럼 들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어쩌면 그것은 제 무게를 못 이기고 굴러 떨어지는 돌을 산꼭대기로 다시 굴러 올리던 시지프스의 그 바윗돌일 것이다. 그는 그것이 위대한 신화로서 인간의 삶 역시 떨어지는 바윗돌을 산꼭대기로 계속 굴러 올려야 하는 끝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sup>1)</sup>

史鐵生<sup>2)</sup> 소설은 고대 그리스의 '시지프스 신화' 를 연상케 한다. 시지프스는

\* 서울강서대학 평생교육원 중국어 강사

1) 史鐵生, 〈山頂上的傳說〉,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290.

2) 史鐵生(1951-)은 北京 출생으로, 1967년 北京清華大學 附屬 中學을 졸업한 뒤, 문화대혁명'上山下鄉運動(농 산촌에 가서 고된 육체노동에 종사)'의 물결 속에서 1969년 陝西省 延安지방의 척박한 산촌에서 '생산대(生産隊)'생활을 하였고, 후에는 가혹한 중노동으로 인하여 척추의 통증과 다리의 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결국 20세의 나이에 하반신 전체가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1979년에 첫 번째 소설 〈法學教授及其夫人〉을 발표하였다. 그의 대표작 〈我與地壇〉, 〈插隊的故事〉, 〈夏天的玫瑰〉, 〈我的遙遠的清平灣〉, 〈合歡樹〉 등은 중국에서 각종 소설상과 산문상을 수상하였고 해외에서도 영어, 불어, 일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我的遙遠的清平灣〉과 〈奶奶的星星〉은 연이어 각각 1983, 84년 중국 우수 단편 소설상을 받았다. 1996년 단편소설 〈老屋小記〉는 浙江省 《東海》 문학 월간지에서 주관하는 三十萬東海文學賞 금상을 수상하였고 〈老屋小記〉와 장편소설 《務虛筆記》는 《作家報》에서 주관하

비극적 운명의 화신으로 인류 수난자의 형상이기도 하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기만 한 죄로 커다란 바윗돌을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돌은 산꼭대기 정상에 올리면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져,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굴러 올리는 아주 무익하고 희망 없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지는 바윗돌은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모든 인간의 숙명을 상징한다.

프랑스 실존주의 사상가 알베르 까뮈(Albert Camus)는 시지프스를 운명에 맞서 저항하는 깨어있는 인간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알베르 까뮈는 1942년 현대인의 삶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사상을 집약한 《시지프스 신화》(The Myth of Sisyphus)를 발표했다. 이 시지프스가 주는 현대적 의미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고통, 인간능력의 한계, 인간의 고독을 피할 수는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와 희망은 가치 있는 것으로서 에릭 프롬(Erich Fromm)의 말처럼 “희망이란 인간존재의 어떤 상태”<sup>3)</sup> 인 까닭이다. 그리하여 시지프스는 “다양한 현실 조건 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역경을 초월하여 이상을 실현해가는 인간 정신을 표상하는 영원한 형상으로 재탄생”<sup>4)</sup> 하게 되었다. 굴러 떨어진 돌을 성실히 밀어 올리는 행복한 시지프스! 이는 부조리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실존적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현대인의 본

는 96년도 10대 소설상을 획득한다. 1997년에는 북경작가협회 부주석으로 당선되었으며 2002년에는 華語 문학 메스미디어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다. 이어서 그의 산문 《病隙碎筆》는 2002년 제1회 라오서 산문상을 수상한다. 그 외, 그는 영화 시나리오 《多夢時節》, 《與人合作》, 《死神與少女》 등을 창작하게 된다. 장편소설 《務虛筆記》에 이어, 2006년 3월 人民文學出版社에서 또 한 권의 장편소설 《我的丁一之旅》가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성과 사랑 및 생명을 주제로 한 철학적 소설로서 그의 아내(현재 北京 華夏出版社 번역가로 재직)의 도움 하에, 그가 휠체어에서 병마와 싸워가며 3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시킨 작품이다.

3) Erich Fromm, The Revolution of Hope,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 Harper Colophon Books, 1968, p.11.  
4) 加藤, 郭宏安 譯, 〈西緒福斯神話〉, 《文藝理論叢書》, 1986, 第3期, p.404 까뮈는 사르트르에 비해 보다 문학적이다. 그는 철학적 체계보다는 문학적 형상화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통해서 부조리를 표현하려고 했다. 사르트르가 현상학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비해 까뮈는 수필이나 문학작품을 통해서 실존의식을 표현한다. 까뮈는 삶에 강조점을 둔다. 그는 철학의 체계 속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며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 감을 발견하는데 힘쓰며 철학보다는 신화를 창조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그의 《시지프스의 신화》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은 형이상학으로서의 신화이다. (정명환, 《21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p.90.)

보기라 할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인간성 회복을 회구하는 작가의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것이다.<sup>5)</sup>

고통이 없으면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史鐵生의 정신은 부조리한 현실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알베르 까뮈 사상의 토대와 맥을 같이 한다.<sup>6)</sup> 까뮈는 삶의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가치를 찾기에 의미를 둔다. 史鐵生의 작가의식은 까뮈의 ‘부조리의 철학’ 처럼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모의 땅에 의미를 부여하는 희망과 연결된다. 史鐵生의 소설 또한 이와 같은 ‘시지프스 신화’가 주는 부조리한 현실과의 험겨운 정신적 싸움의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과 희망의 의미가 가장 잘 함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史鐵生 소설의 ‘장애인 모티프’의 형성 배경과 그 의의를 통해 작가의 창작동기와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史鐵生은 이상의 폐허 공간에 ‘이상의 성’을 재구축하며, 허무한 운명 속에서 자신의 숙명을 초월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허무와 운명에 저항하는 영웅이 되었다. 장애라는 현존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史鐵生의 ‘과정론적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운명에 저항하며 삶에 희망을 품고 모든 현실적 고통을 초월하고 승화시켜나갔던 그의 위대한 정신력의 표상과 그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2. ‘장애인 모티프’의 형성 배경과 그 의의

史鐵生 소설은 장애인의 운명에 대해 일관되고 집요하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sup>7)</sup> 장애인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 모티프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는, 오로지 눈을 떠서 세상을 한번 보겠다는 목적

5) 80년대 후반기의 史鐵生 소설은 휴머니즘적 의미의 사상성이 높고 종교와 공통된 인간에 관한 관심을 담고 있다. (陳順馨, 《中國當代文學的敘事與性別》, 北京大學出版社, 1995, p.213.)

6) 프랑스의 실존주의 사상이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스 신화》가 史鐵生의 사상과 창작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許慶亮, 陳祥蕉, 〈史鐵生: 人的殘缺證明瞭神的完美〉, 《南方都市報》, 2003, p.5.)

7) 胡山林, 〈生命意義的探尋—史鐵生作品的中心意蘊〉, 《河南大學學報》, 1997, 第4期 참조.

으로 삼현금 천 번째 줄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던 늙은 맹인 악사 이야기인 〈命若琴弦〉<sup>8)</sup>, 작열하는 태양 아래 희망의 장소를 찾아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굴리던 젊은 축구팬의 이야기인 〈足球〉<sup>9)</sup>, 하루 종일 작은 공장에 숨어 지내는 장애인 이야기인 〈午餐半小時〉<sup>10)</sup>, 온전치 않은 다리로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비둘기를 찾아 헤매는 어느 절름발이 작가 지망생의 이야기인 중편소설 〈山頂上的傳說〉<sup>11)</sup>,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어린 소녀 주유(侏儒)의 이야기 〈來到人間〉<sup>12)</sup>,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학의 길을 포기하게 된 전도유망했던 어느 젊은 교사의 이야기인 〈宿命〉<sup>13)</sup>, 전신마비로 인해 평생을 누워 지내며 자신이 창조해 낸 ‘신화’를 들려주는 장애인 아저씨의 이야기 〈原罪〉<sup>14)</sup>…… 그 외에도 휠체어 생활을 하는 ‘나’를 화자와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로서 철학과 현학을 담고 있는 이야기 〈我之舞〉<sup>15)</sup>이나 자전적 색채가 농후한 〈我的遙遠的清平灣〉<sup>16)</sup>과 중편소설 〈插隊的故事〉<sup>17)</sup>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렇다면 史鐵生이 ‘장애인 모티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이유를 장애인인 작가가 자신에게로 귀결시킬 수 있다.<sup>18)</sup> 또는 이러한 ‘장애인 모티프’ 소설은 작가의 심리가 투영된 것, 다시 말해 작가의 장애의식에 대한 외재적 표현으로 간주할

- 8) 史鐵生, 《命若琴弦》(1985), 《史鐵生作品集》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命若琴弦》은 陳凱歌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작품 《현 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있다. 중국에서는 《邊走邊唱》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었는데, 이는 陳凱歌 감독이 史鐵生의 소설 《命若琴弦》을 직접 각색하고 대폭적으로 개작한 영화이다. 제목 그대로 소설 《命若琴弦》은 인생을 현에 비유하여 그린 우연형식의 소설인 반면, 영화 《邊走邊唱》은 걸으면서 노래한다는 뜻으로 현의 이미지보다는 노래하고 걷는 동작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邊走邊唱》은 영화 속 주인공 늙은 맹인의 신 만들기 대목이 毛澤東을 우상화했던 문화대혁명 시대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상영이 금지되어 지금까지도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이다.
- 9) 史鐵生, 「足球」(1984),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0) 史鐵生, 「午餐半小時」(1979),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1) 史鐵生, 「山頂上的傳說」(1984),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2) 史鐵生, 「來到人間」(1985),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3) 史鐵生, 「宿命」(1987), 《史鐵生作品集》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4) 史鐵生, 「原罪」(1987), 《史鐵生作品集》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5) 史鐵生, 「我之舞」(1986), 《史鐵生作品集》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6) 史鐵生, 「我的遙遠的清平灣」(1982),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7) 史鐵生, 〈插隊的故事〉(1985),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18) 史鐵生 텍스트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부분 신체 장애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육체적 불구 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 능력의 한계성, 인간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 있다. 나아가 작가의 창작활동에 관한 심층적인 동기를 그의 텍스트 속 주인공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史鐵生 소설의 '장애인 모티프' 가 이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본다.<sup>19)</sup>

史鐵生 소설에서는 한 생명체로 하여금 육체적 장애 현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기정사실' 과 '현실' 에 대한 태도와 해석은 곧 '장애인 모티프' 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이루고 있다. 서독의 어느 학자는 “장애 모티프가 과거에는 자연과의 충돌에 치중했다면, 오늘날에는 사회와의 충돌로 바뀌었다”<sup>20)</sup> 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애 모티프는 史鐵生 소설에서 사회와의 충돌하는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주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로 직접적으로 파고들어감으로써 작가를 항상 긴장시키며 고독감과 불안감을 조성시킨다. 인간은 심각한 자연적 충격을 받게 되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비통해하기 때문이거나 생명의 나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문득 죽음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활이 모든 정상적인 궤도에서 계속 벗어나게 되면 절망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 본능에 뿌리박은 문화적 경험 속에 누적되어 있는 깊은 정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부족, 민족, 문화, 제도라든지 장애인이나 장애 현상에 대해 본능적이고 습관적인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다.

그는 앞으로 거리 청소뿐만 아니라, 글도 쓸 생각이다. 마음 가는대로 장애인을 위해 글을 쓸 것이다. 자기 스스로 深淵(심연)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애'이

19) 이론적으로 소설은 작가, 서술자(화자), 주인공 이 세 명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史鐵生 소설에서는 작가와 서술자의 정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史鐵生 개인의 경험과 소설 속 화자의 경험 일치로 인해 장애인의 인생, 정서 및 운명에 대한 집약적 표현과 소설의 '장애인 모티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史鐵生이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모티프의 소설을 집필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작가와 서술자의 정서 일치로 독자로 하여금 '장애인 모티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20) 장애 테마의 핵심이 과거에는 '자연과의 충돌'에 치우쳤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사회와의 충돌'로 전환되었다. 여기에서 '자연과의 충돌'이란 생존의 곤경을 가리키며 '사회와의 충돌'이란 정신적 위기를 말한다. (威拉·波蘭德, 張寬譯, 〈文學與疾病〉, 《文學研究參考》, 1986, 第3期, p.27.) 史鐵生은 양자 중 후자인 사회와의 충돌에 더욱 주목한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를 통한 생명존중 의식과 인류애의 내재적 관계로 인해 史鐵生 소설은 독자들을 크게 각성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자'죄악'인 것이다. 그 심연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경시와 편견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에게 장애인 존엄성을 이해시켜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도 자기 존엄에 대해 더욱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심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힘겹게 산 정상에 다다르고 있었다.<sup>21)</sup>

장애는 그저 육체적인 현상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본능과 문화의 특성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가장 심한 고통은 바로 사회와 타자로부터 무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정신적인 충격이다. 이런 버림 받은 느낌이나 고독감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자포자기, 자기학대, 자살 심지어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으로 표현된다.<sup>22)</sup> 혹은 생명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거나 신비에 가까운 추측 또는 환상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아주 심한 충격을 받은 생명체의 경우는 소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강인한 생명 의식으로 표상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작가 史鐵生, 그가 묘사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모티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평생을 멀리와 모욕 속에서 살아가도록 태어난 여자 아이가 이토록 나약한 생명의 순간에 어떻게 장애의 고통과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까?(〈來到人間〉) 늙은 맹인이 임종을 앞둔 순간 조차空的 결과(백지장)를 생명의 진실된 희망으로 여기며 어린 맹인에게 전수하는 모습을 단순히 운명이라 체념하는 것으로만 간주할 수 있을까?(〈命若琴弦〉) 중노동의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병상에 누워 살았던 '나'는 어찌서 저 떠나면 청평만을 그토록 그리워했을까?(〈插隊的故事〉) 불투명한 미래와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두 젊은 장애인은 왜 그토록

21) 史鐵生, 〈山頂上的傳說〉,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257

22) 史鐵生 소설의 〈來到人間〉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가 친구들의 야유, 조소, 멸시를 받으며 모욕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그녀가 자신의 육체적 장애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환경은 그녀의 장애 의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史鐵生이 자신의 육체적 장애에 대해 비록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지만 자아의식에 대한 성찰, 다시 말해 영혼 속에 깃들어있는 열등한 그림자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애와 현실을 초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강한 숙명 의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史鐵生 소설의 '장애인 모티프'가 표상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 각자가 살아온 인생 역정에서 경험한 정신적인 문제와 내면의 고통들이다.

작열하는 태양 속에서 휠체어를 굴리며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지나간 여행을 떠났을까?(〈足球〉) 어느 절름발이 작가 지망생이 온전치 않은 몸을 이끌고 밤새 비둘기를 찾으려 했던 강인한 정신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山頂上的傳說〉)

그렇다면 史鐵生의 ‘장애인 모티프’ 소설이 작가 자신의 생명 의식이자 행복한 영혼에 대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가 한 생명에게 파괴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생명의 강인함과 위대함은 이러한 파괴적인 위협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史鐵生의 ‘장애인 모티프’에 관한 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이로서 史鐵生 작품의 ‘장애인 모티프’가 가진 심층적인 의미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소위 생명 가치에 대한 긍정은 史鐵生의 ‘장애인 모티프’가 지닌 가장 표층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인류의 문화적 경험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버림 받은 느낌으로 인해 장애인의 요구는 그 자신의 생명 존재에 대한 긍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나 정신을 사회와 문화 구석구석에 침투시키겠다는 강렬한 요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史鐵生의 ‘장애인 모티프’가 나타내는 인격에 대한 존엄성, 인간 상호 간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사회 전체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야 만이, 장애인의 정신적인 부담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의미를 넘어 궁극적으로 인류 해방에 대한 소망을 의미한다.

史鐵生은 장애인으로서 타인과 사회가 자신에게 보내는 동정과 배려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는 이를 원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인도적 도움을 자신의 고귀한 인격에 대한 침해이자 모욕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타인의 연민과 동정에 대해 심할 경우 적대시하고 저주스런 태도를 품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를 단순히 사회적 동정에 대한 장애인의 거부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sup>23)</sup>

23) 사실상 그의 텍스트 구석구석에서 인간적인 온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령, 현재까지 가장 유명한 자전적 성격이 강한 두 편의 소설 〈我的遙遠的清平灣〉과 〈攝塚的故事〉가 가장 좋은 예이다. 그 속에는 인간 삶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운 온정이 말이나 표현 속에 묻어나고 있다.

늙은 바보. 어느 누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까? 사람들은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당신을 비관주의자라고 말할 것이다. 바보 같으니라고! 당신이 만약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 부담"이라는 말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가! 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스스로가 사회의 부담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반신불구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 피하지 않을까? 무슨 놈의 인도주의인가! 한 아이에게 몇 십 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게 무슨 놈의 휴머니즘인가! 사람들은 그 아이의 미래가 어찌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낙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라고 생각한다.....<sup>24)</sup>

그렇다면 史鐵生이 동정을 적대시하는 심리상태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비열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과 반감이 중요한 원인인 듯 하다. 오로지 장애인만이 장애인의 생리적, 심리적인 체험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도움이 사심 없는 인도적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천진스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도적 행위는 현실적인 문화 전통과 인성 차원에서 종종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도덕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는 듯이 고고한 우월감과 적선의 태도로 대할 뿐, 진정으로 내면에서 우리나라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고 마치 거지를 대하듯 동정의 눈길로 장애인을 바라본다. 장애인에게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단지 자신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증명해 보이는 행위일 따름이다. 그 이면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작가는 생각한다. 그는 또한 정상인으로서의 생활과 행동을 하기 위한 가능성을 박탈당한다. 중편소설 〈山頂上的傳說〉에서 장애인 작가 지망생을 돕고 싶어하던 가장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기대치를 높이지 마라." 장애인은 결국 용서받을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 그것은 그가 장애인이라는 데 있다. 작가는 그의 이러한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선한 사람들의 내면에도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가 도사리

24) 史鐵生, 〈夏天的玫瑰〉, 《史鐵生作品集》 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150.



고 있다. 정상인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똑같이 요구할 수 없다.”<sup>25)</sup> 史鐵生은 이 때문에 내면의 큰 비애와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는 마치 “불평등은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다!” “선의의 관용은 악랄한 모욕보다 더 참기 어렵다.”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란 말이다!”<sup>26)</sup>라고 외치는 것 같다.

육체적 장애는 정신적, 감성적, 인격적인 존엄성이 함부로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에게 베푸는 동정, 관용, 도움 등은 인간 간에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장애인의 육체적인 결함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안 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차가운 멸시, 악랄한 저주와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작가는 “인간이 장애와 현실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의미와 인격의 가치에 대한 평등함을 느낄 수 있음”<sup>27)</sup>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온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이상이기도 하다.

### 3. ‘과정론적’이상주의 추구

史鐵生은 ‘과정론적’ 이상주의자이다.<sup>28)</sup> 그의 소설은 ‘과정’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며, 대안의 제시와 해결 방안보다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함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 〈原罪〉의 인용문을 통해 史鐵生은 확실하게 고증할 수 있는 진리보다는 모호하고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문학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史鐵生, 〈山頂上的傳說〉,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283.

26) 史鐵生, 〈山頂上的傳說〉, 《史鐵生作品集》1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284.

27) 楊瑞敏, 〈史鐵生論: 突圍...生命的追求〉, 《上海文論》, 第5期, 1990, 11, p.248. 史鐵生 창작에 있어 ‘생명의식’은, 특히 1984년 이후의 창작의 중심주제가 되어왔다. 작가는 생명의식을 문학의 기점과 뿌리로 여겼다. 초반기에 그는 생명의식은 운명과의 저항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얻는 것으로 삶의 고통을 초월하여 정신적 승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겼다. 후반기에는 생명의식의 의미는 공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자체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

28) 史鐵生의 이상주의에 관해서는 許紀霖, 「另一種理想主義」, 《命若琴弦》, 江蘇文藝出版社, 2003, pp.284-285 및 張宏 責編, 「史鐵生: 理想主義者的愛情哲學」, 《山西商報》, 2006 등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신은 이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지나치게 추궁할 필요가 없다.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결국 다시 그의 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나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까닭이다.<sup>29)</sup>

〈命若琴弦〉에서, 오로지 눈을 떠서 세상을 한번 보겠다는 목적으로 삼현금 천 번째 줄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던 늙은 맹인 이야기꾼 악사는, 드디어 현의 천 번째 줄을 끊은 날, 50년 동안 간직해온 처방문이 그저 한 장의 백지였음을 알게 된다. 끝내, 그 꿈이 한낱 허구였음을 발견한 순간 절망에 빠지지만, 사실은 허구의 목적을 좇아 힘겹게 살아왔던 과정 과정마다의 애환 그 자체 속에 자기 삶의 참 의미와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늙은 맹인 악사는 그의 제자인 어린 맹인악사에게 처방문을 삼현금 울림통에 넣어주며, 그의 스승이 자신에게 주었던 똑같은 허구적 꿈을 전수하게 된다.

“기억하거라. 사람의 생명은 바로 이 현과 같아서 팽팽하게 조여져 있을 때라야만 잘 쉼 수가 있는 거란다. 제대로 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죽한 게다.”(중략) 그렇다. 인생은 본래 목적이 없는 것임을 의미했다.

삶의 목적은 비록 허구(空)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현을 팽팽하게 조일 수 있겠는가. 팽팽하게 조일 수 없다면 현을 제대로 쉼 수 없는 것이다.

“어찌 천 이백 번이나 쉼니까, 스승님?”

“천 이 백번이다. 내가 충분히 다 쉼 컸던 것이란다. 천 번으로 착각했구나.” 늙은 장님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현을 아무리 많이 쉼다하더라도 살아서는 천 이백 번까지는 다 쉼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영원히 생명의 현을 팽팽하게 조일 것이라고. 그러한 까닭에 처방문을 볼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sup>30)</sup>

〈命若琴弦〉에서 늙은 맹인 악사의 말은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허구와 거짓 속에서 과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늙은 맹인은 史鐵生의 인생관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허구 속에서의 이상 추구’가 바로 ‘과정(허구)’ 속에서 영

29) 史鐵生, 〈原罪〉, 《史鐵生作品集》 2卷, p.266.

30) 史鐵生, 〈命若琴弦〉, 《史鐵生作品集》 2卷, pp.40-41.

원한 ‘생명의식’ 을 추구하고자 하는 史鐵生의 문학관이 집약된 말이라 할 수 있다. 史鐵生 소설에서 이상 추구란 인간의 한계 초월을 갈망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이상적 경계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존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꿈과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꼭 실현하겠다는 결과의 의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하겠다는 삶에 대한 애착이며 쉽 없는 ‘생명의식’ 의 발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도전 이후 비록 돌아오는 것이 ‘空的 결과’ 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표에 대한 열정이 소진하지 않는 까닭은 ‘과정 자체의 소중함’ 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原罪〉에서 주인공 아저씨는 목 아래 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 장애인으로 온 종일 작은 방안에 누운 채, 거울과 창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뿐이다. 아저씨가 들려주는 모호하고 신비스러운 신화를 둘러싼 수많은 대화와 얽힘 속에서 작가는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사람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낱 꿈이나 신화로 끝난다는 결말의 허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 전설, 신화 세계에서라도 이를 수 있다는 과정 자체에 있다. 이러한 장치는 허구이면서도 허구가 아닌 듯한 경지로 독자를 끌고 감으로써, ‘꿈, 전설, 신화라는 허구적 공간 속에서 ‘현실 초월적 인생을 추구’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고 있다.

“인간에게 의지할 신화조차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란다.”……“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모두 신화에 불과한 것이란다. 그것이 모두 신화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 번 다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게 되지. 하지만 네가 삶을 살아가는 한 반드시 어느 하나는 진실하다고 믿어야 해. 동시에 그것 또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단다.”<sup>31)</sup>

〈山頂上的傳說〉에서 작가 지망생 장애인인 주인공은 세상의 질서와 편견으로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욕과 자존심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충동에 휩싸인다. 주인공은 사랑했던 여인이 주고 간 비둘기를 찾

31) 史鐵生, 〈原罪〉, 《史鐵生作品集》2卷, pp.281-282.

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종착지도 목적지도 없는 길을 그저 불구가 된 두 다리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힘겹게 나아갈 뿐이다.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은 드디어 산꼭대기에 올라 그의 비둘기를 보게 되나, 비둘기는 더 멀고 더 높은 다른 산꼭대기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여기에서 비둘기는 잃어버린 자아, 즉 ‘날 수 있는 자아’를 찾아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산꼭대기는 정신적이고도 창조적인 또 다른 높은 목표이자 작가가 추구하는 초월적 가치를 지닌 이상향을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목표와 이상세계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설’이라는 서술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운명과의 저항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기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 운명의 고통에 저항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산다는 것이 또 별 다른 일이겠는가? 인간은 중국에 무엇을 얻을까? 하나의 과정만 얻게 될 따름이다!<sup>32)</sup>

그리하여 작가는 이 세상에서의 곤경은 그 운명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命若琴弦〉에서 나타나는 결말의 비극성도 이러한 좋은 일례이다. 늙은 맹인 악사는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준 물건(처방문)이 원래는 거짓(空의 결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그토록 바쁘고 활기차게 산을 넘고 현을 켜며, 마음을 조이며 지냈던 날들이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늙은 맹인 악사와 어린 맹인 악사는 또다시 방랑의 길을 떠난다. 늙은 맹인은 산다는 것은 가시적 목표 달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늙은 맹인 악사의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통해,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해피엔딩 이상의 진실감과 현존 초월의 강인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다.

〈原罪〉에서 거울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는 주인공 장애인 아저씨는, ‘나’와 등장인물들과 함께 거울을 통해 본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하얀 건물을 찾

32) 史鐵生, 〈山頂上的傳說〉, 《史鐵生作品集》1卷, p.291.

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 하얀 건물에 다가가면 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곳은 볼 수는 있을지언정,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였던 것이다. 이에 좌절한 주인공은 병이 나고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며, 더 이상 신화를 만들지 않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해낸다. 비눗방울을 불며 자신의 병이 완치될 수 있기를, 이 세상에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희망과 신념을 품게 된다. 이 작품은 장애인인 주인공의 내적 변화를 통하여 비극을 어느 정도 승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宿命〉은 주인공의 일순간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고의 원인을 캐 들어가 보면 그것은 결국 개 한마리가 “학교 정문 한가운데의 커다란 표어를 바라보며 편 방귀” 때문이었다. 그 터무니없는 원인과 비극적인 결과 사이에서 어떤 합리적인 필연을 찾아낼 수는 없다. 〈足球〉에서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끄는 두 장애인 청년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 여전히 아득하고 막연한 것임을 알게 된다. 힘겹게 휠체어를 끌고 와서 “운동장에 다다르지” 만 소설은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끝이 나며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하나의 과정만 남게 된다. 〈禮拜日〉에서도 꿈의 세계에서 인파를 뚫고 나온 여자는 산길에서 평화로운 풍경의 깊은 못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 곳으로 달는 길을 찾지 못한다. 길은 인간이 발견하게 되면, 절벽의 바위 덩어리가 무너져 내려와 산자락 밑으로 가는 길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기 운명애의 저항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작품 〈禮拜日〉 역시 결말에 존재의 허망함과 사랑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는 비극이지만 주인공이 장애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황 끝에 산자락 밑에서 발견한, “천당의 아름다운 신화”와 “지옥의 잔혹한 귀신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두 책에 관한 꿈의 묘사가 상징하는 것은 자유와 상호 이해에 바탕을 둔 종교적 구원과 초월적 생명애의

33) 일반인이 볼 때, 〈原罪〉의 장애인 아저씨의 처지가 가장 절망적일지도 모른다. 그는 전신마비로 인해 그저 침대에 누워 거울을 통해 외부 세계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육체적 행위의 가능성을 잃어버렸기에, 역으로 그 모든 에너지가 내부로 응집되어 더욱 강렬한 정신력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상상 속에서 각지를 돌아다니고 자신이 창조해낸 신화 세계 속에서 중황무진 치달으며 결국 진실한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갈망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그는 꿈속에서 이제껏 잊고 있었던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기억을 해 내었다. 두 책은 마치 두 사람 사이처럼, 서로 동시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책을 거꾸로 끝에서부터 앞을 향해 읽어 보기로 했다. 그는 자유란 부자유스러움 속에 쓰여진 하나의 마음이며, 철저한 이해는 철저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 위에 쓰여진 하나의 지혜인 것임을 알았다.<sup>35)</sup>

이러한 비극적, 모호한 불완전한 결말의 근거에는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가 내재하고 있다. 밑 모를 어둠의 곤경 속에서, 죽음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험겨운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작가는 죽음이란 어차피 누구나가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인 이상, 인간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영위하는 삶은 바로 그 “과정 자체가 목적”<sup>36)</sup>이 될 수 있으리라는 깨달음이었다. 작가는 오직 작품으로서만 자신의 지향을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적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느냐는 결론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향을 위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던져넣었는가의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지프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그 바위를 올리고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바위가 다시 떨어지고 말더라도 또 다시 되올리고자 하는 용기와 힘이기 때문이다.

34) 史鐵生 텍스트 속 주인공인 장애인들은 현존 초월 정신의 무한한 힘을 얻어 현실적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얻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초월세계에서 주관적인 몽상과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자기만의 天堂을 소유하게 된다.

35) 史鐵生, 〈禮拜日〉, 《史鐵生作品集》2卷, p.264.

36) 史鐵生, 〈好運設計〉, 《史鐵生作品集》3卷, p.199.

#### 4. 숙명의식, 그리고 초월과 승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史鐵生 작품에서 단순한 감탄의 표시가 아닌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7)</sup> 史鐵生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 차례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주재하는 신비롭고 강인한 힘을 연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 숙명적인 힘을 상징하는 최고의 화신이다. 그렇다면 史鐵生이 소설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이러한 운명적·숙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史鐵生의 장애 모티프 소설은 몽환적 정서의 회고적 구성을 취하는 작품이 많다.<sup>39)</sup> 이런 회고성<sup>40)</sup>은 소설을 시작할 때 즐거리가 시작되는 특정 시간, 즉 이미 지나가 버린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해주려는 이 사람과 이 일들이, 만약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이미 몇 십 년 전의 일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나는 아주 어렸었고 지금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sup>41)</sup>

37) 우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작품 속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그 빈도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일 것이다.”(〈我之舞〉) “그는 어쩌면 하나님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쫓아낸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山頂上的傳說〉), “하나님은 어째서 내 어머니를 그토록 일찍 데려가셨을까?”(〈合歡樹〉), “하나님이 물건 하나를 숨기셨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禮拜日〉) “하나님이 세상에 평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자 평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宿命〉) 주지하다시피 작가는 ‘창작담론’에 관한 몇몇 작품들 속에서도 소설에서처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으신다.”(〈几回回夢里回延安〉), “……십 여 년 전에 그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爲了人們相互間的美好關係〉) 등이 좋은 예이다.

38) 작가는 작품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에 우주, 인류, 인생에 대한 일종의 광대한 사랑의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史鐵生의 작품은 “원죄를 용서받고 세속적 현실을 초월”하는 정신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가는 개인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고통을 깨닫고 승화시켜감으로써 더욱 더 높은 위치에서 우주를 관조하게 된다. (黃偉林, 《中國當代小說家群論》, 中央編譯出版社, 2004, p.209)

39) 그 대표적 작품으로는 위에 상술한 작품 이외에 〈我的遙遠的清平灣〉, 〈揀橡的故事〉, 〈黑黑〉, 〈合歡樹〉 등이 있다. (榮松, 〈殘疾意識與人類情感-史鐵生小說新論〉, 《當代文壇》, 1992, 第12期, p.210.)

40) 이러한 회고성은 작가의 자아 초월과 승화적 의미, 강인하고 무한한 생명력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그 대표 작품으로는 汪曾祺식 정취를 느낄 수 있는 〈我的遙遠的清平灣〉, 〈揀橡的故事〉, 〈幾回回夢里回延安〉 등이 있다. (孫郁, 〈通往哲學的路-讀史鐵生〉, 《當代作家評論》, 1998, 第6期, pp.165-166.)

이것은 작가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강요해 낸 심리적 산물이다. 아들러가 말한 최초의 기억이 인간의 정신생활 속에 깊이 관류한다는 각도에서 볼 때, 사람은 수많은 유년기의 상황이나 일화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골라 내어 기억하며 그것은 그 사람의 중요한 관심이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42)</sup> 아들러에 의하면 이러한 관심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에 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열쇠라는 것이다. 모든 심적 표현 속에서 가장 계시적인 것은 개인의 기억이다. 인간의 기억은 그의 주변, 즉 그 자신의 모든 한계나 모든 상황의 의미를 생각나게 한다. 우연한 기억이란 것은 없는 것이다.

史鐵生 소설의 서술 방식은 회고라는 거의 전형화 되고 규격화된 모습들이다. 작가는 어떠한 내재적인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규격화된 서술 기법을 고수했던 것일까? 만약 앞서 열거한 현상들을 통해 분석해 본다면, 史鐵生의 영혼 깊은 곳에 ‘기억의 중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기억의 중첩이 그로 하여금 작구 고뇌하게 만들고 마치 어떤 외재적인 힘에 의해 쫓겨다니며 압박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기억의 거미줄’ 속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그 신비롭고 강력한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史鐵生 소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장애’이다. 필자가 열거했던 현상들을 살펴보면, 모두 그의 장애와 깊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육체적 장애와 그로 인한 심리적 우울함이 史鐵生의 기억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기억 자체가 이러한 불행한 일들의 산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회고를 통해 어쩌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식

41) 史鐵生, 〈原罪〉, 《史鐵生作品集》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266 그 외에, “내가 18살이 되던 어느 해 여름이었다”(〈我之舞〉), “먼저 말해줄 것은 이것이 이미 지난 시절의 일이라는 점이다”(〈黑黑〉), “내가 10살이 되던 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合歡樹〉), “작년에 나는 마치 꿈을 꾸 듯 섬북(陝北)으로 돌아왔다”(〈擲骰的故事〉), “프랑스 축구 팀이 이 곳에 와서 경기를 할 때가 8월 중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足球〉),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978년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老人〉) 등이 좋은 예이다.

42) A. 아들러/H. 오글러, 설영환 옮김,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7, 2, p.329.



이어야 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한없이 계속된다. 그 계속되는 질문들에 대해 언젠가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숙명 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소설 〈宿命〉에서 처럼 육체적 장애의 외재적 원인으로써 여겨지는 운명적 요소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작가는 자신의 장애를 운명이라는 필연으로 단정지어 죄의식에서 벗어남으로써 마지막 심리적 평온과 영혼의 귀착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 운명이라고 믿는다. 왜 그럴까? 오페라 《황아장수와 아가씨》 공연이 끝난 시간이 밤 10시 정각이었다. 극장과 만두 가게 사이의 거리가 어떻든지 나의 자전거 모는 속도에 상관없이, 나는 10시 이전에 만두 가게에 도착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산수문제였다. 즉, 내가 자전거로 오페라를 보러 갈 때, 하나님은 모페이(莫非)의 앞날을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었다. 팔자에 있는 사나운 운수는 피할 수 없었다.<sup>43)</sup>

그리하여 기억이란, 史鐵生에게 숙명으로 나아가고 초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심리적 방편이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애’가 작가 자신의 기억에 중요한 생리적, 현실적 동기였다면, ‘숙명’이란 곧 그에게 심리적, 잠재적인 동기였다. 기억은 바로 史鐵生의 숙명 의식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렇다면, 史鐵生 소설에서 숙명이란 그저 일반적 의미의 의식적 경향을 뜻하는 것일까? 또한, 史鐵生의 숙명의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독특한 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나님이나 숙명에 대한 종교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역량 이상의 대상과 대면하거나, 도저히 혼자 풀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자신의 연약함이나 미비함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어렵풋하게 인지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때문에 숙명의식은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의 것이기 쉽고, 현실 생활 속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史鐵生이 文革 시기 갑작스런 하반신 마비라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43) 史鐵生, 〈宿命〉, 《史鐵生作品集》 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300.

더구나 사고 후 그 충격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비록 그것이 순전히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이러한 우연한 일로 인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러한 우연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다. 우연한 결과라도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국 필연적이고 살아 있는 동안 우연한 가능성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은 결국 '우연적인 필연' 또는 '필연적인 우연' 일 것이다. 때문에 史鐵生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서 생명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하였다. 세상 만물은 초월적인 무형의 외재적 힘에 의해 조종당한다. 이것이 바로 숙명인 것이다. 인간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몇 번이나 다른 색으로 채색할 수 있지만, 생명의 본질과 그 최종 귀착점은 “마치 평온하지 않은 거친 파도 위를 표류하듯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가 누구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sup>44)</sup> 삶 자체의 허무가 아닌 사람들이 삶과 생명에 대해 느끼는 허무이다.

史鐵生 텍스트와 시지프스 신화에서 숙명의 힘은 곳곳에서 강렬하게 존재한다. 史鐵生도 이 점을 알아차렸지만 회피하려고도 했던 것 같다. 육체적 부자유와 현실적 고통으로 史鐵生의 마음은 딜레마에 빠졌고 거의 모든 텍스트에서 나타나듯이 인간 운명에 대한 회의와 인간 의지, 삶의 희망이라는 영원한 대립성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장애의식, 생명의식, 숙명의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완고한 투쟁정신으로 침투되지 않은 게 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충돌, 저항, 침투는 史鐵生 내면 깊은 곳의 감정과 이성이 싸운 결과물로 보여진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저항, 반항하는 과정 속에서만 생겨나 그 위대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숙명의식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감성적인 것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성과 규명할 수 없는 사색을 토대로 삼고 있는 까닭이다.

史鐵生을 운명론자라기 보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史鐵生은 생과 사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귀결지어 자신의 영혼 앞에 펼쳐 놓았다. 작가는 “인간의

44) 史鐵生, 《命若琴弦》(1985), 《史鐵生作品集》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42.

운명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운명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선호했을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대답이라면,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일찍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대답이라면, 자신이 이토록 비참한 재앙을 겪은 것이 운명의 장난뿐만 아니라 자기영혼의 ‘원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답으로 史鐵生은 자신에 대해 부정할 뿐이지만, 이 역시 결국 더욱 철저한 숙명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그의 소설 〈原罪·宿命〉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史鐵生의 고통은 위의 두 가지 해답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史鐵生과 시지프스의 이성운명을 부정하고 회의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sup>45)</sup> 그들의 감성은 운명에 순응하는 경향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통해 현실에 대한 희망을 품고 모든 현실적 고통을 초월하고 승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 5. 마치면서

사실 당신에게 유일한 것은 과정입니다. ……죽음의 신도 아름다운 과정을 아름답지 않은 과정으로 바꿀 수는 없고, 가혹한 운명도 당신이 아름다운 과정을 창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당신은 죽음을 아름다운 과정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가혹한 운명도 아름다운 과정을 창조하는 데 더욱 유리한 것입니다.<sup>46)</sup>

史鐵生은 생존 의미의 확증은 ‘목적’에서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이 단지 목적만을 바라본다면,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까닭에 있다. 그러나 일단 과정으로 전환된다면, “가혹한 운명도 당신이 훌륭한 과정을 창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당신은 죽음도 하나의 훌륭한

45) 러시아의 철학자 세스토프(1866~1938)에게는 이성은 무익한 것이지만, 그 이성 너머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부조리의 정신에게는, 이성은 무익한 것이고, 이성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알베르 까뮈, 민희식 옮김, 《시지프스의 신화》, 육문사, 1990, 2, p.53.)

46) 史鐵生, 〈對話四則〉, 《史鐵生作品集》 3卷, p.221.

과정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목적의 허무를 보아야 비로소 그 심미적 경지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의 절망을 보아야 비로소 그 심미적 구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기쁨에 벅찬 가슴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바 있다. “생명의 가치는 당신이 냉정하면서도 걱정적으로 그 생명 과정의 아름다움과 비장함을 감상할 수 있느냐에 있다. …… 굴복으로부터 자부심을 얻고, 고난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며, 허무로부터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 47)

史鐵生 소설의 주인공들은 시지프스처럼 그들의 열정과 고통으로 인해 부조리의 주인공이었다. 죽음에 대한 회의, 죽음에 대한 증오, 삶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無(空의 결과)” 를 성취하는 데에 온 존재를 써야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벌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열정을 위해 치러야만 하는 값이다. 史鐵生은 〈命若琴弦〉에서 삶의 목적이란 본래 허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적 이 허구일지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나온 까닭이다. 이것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이성적 삶’ 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한 세대인의 존엄적인 삶을 지탱해주었다.” 48) 史鐵生 소설의 주인공들은 밑 모를 어둠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 작가는 나와 타인과의 단절에 의한 고독, 우주의 무한성에 비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절망감을 인식하고 삶의 목적은 바로 장애와 현존의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쉽 없는 “과정” 자체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본원적으로 처해져 있는 삶의 고통과 장애인 것이다.

그렇다면, 史鐵生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은 시지프스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그 순간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이고, 그는 그의 운명보다 위대했으며, 그는 커다란 바윗돌보다 더욱 강인했다” 49)는 까뮈의 말일 것이다. 또한, 이는 그의 걸음마다 성공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찼고 동시에 그를 지탱해주었던 힘인 까닭이다.

47) 史鐵生, 〈好運設計〉, 《史鐵生作品集》 3卷, p.199.

48) 趙園, 《地之子》, 北京大學出版社, 2007, 1, p.273.

49) 알베르 까뮈, 민희식 옮김, 《시지프스의 신화》, 육문사, 1990, 2, p.161.

## 《參考文獻》

- 史鐵生,《史鐵生作品集》全3卷,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5.
- 史鐵生,《想念地壇》,南海出版公司,2003. 8.
- 史鐵生,《命若琴弦》,江蘇文藝出版社,2003.
- 陳順馨,《中國當代文學的敘事與性別》,北京大學出版社,1995.
- 陳平原,《中國小說敘事模式與轉變》,上海人民出版社,1988.
- 黃偉林,《中國當代小說家群論》,中央編譯出版社,2004.
- 陳思和等,《理解九十年代》,人民文學出版社,1996.
- 趙園,《地之子》,北京大學出版社,2007. 1.
- A·阿德勒,黃光國譯,《自卑與超越》,作家出版社,1986.
- 程德培,〈對抗自殺的故事—史鐵生論〉,《上海文論》,1988. 6.
- 楊曉敏,〈史鐵生論:突圍...生命的追求〉,《上海文論》,1990. 11.
- 榮松,〈殘疾意識與人類情感—史鐵生小說新論〉,《當代文壇》,1992. 6.
- 張新穎,〈平常心與非常心—重讀史鐵生〉,《上海文學》,1992. 10.
- 石杰,〈史鐵生小說中的宗教情神〉,《中國人民大學學報》,1994. 1.
- 胡山林,〈生命意義的探尋—史鐵生作品的中心意蘊〉,《河南大學學報》,1997. 4.
- 加繆,郭宏安譯,〈西緒福斯神話〉,《文藝理論譯叢》,1986,第3期.
- 威拉·波蘭德,張寬譯,〈文學與疾病〉,《文學研究參考》,1986,第3期.
- 정명환,《21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서울대학교출판부,1979.
- 알베르 까뮈,민희식 옮김,《시지프스의 신화》,육문사,1990. 2.
- 알베르 까뮈,김화영 옮김,《시지프스의 신화》,책 세상,1997.
- 장 폴 사르트르,방정태 옮김,《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이학사,2008.
- A. 아들러/허. 오글러,설영환 옮김,《아들러 심리학 해설》,선영사,1987, 2.
- 리차드 윌하임 지음,조대경 옮김,《프로이트》,민음사,1989.
- 칼 구스타프 융,전혜정 옮김,《융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살림,1997.
- 白永吉,〈史鐵生小說의 宗教性-理念의 喪失과 生命意識〉,《동아시아역사연구》6권,1999.
- Erich Fromm, The Revolution of Hope.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 Harper Colophon Books, 1968.

《中文提要》

看史鐵生的小說就聯想到古希臘‘西緒福斯神話’。西緒福斯是悲劇的化身也是人類受難者的形象。西緒福斯因欺瞞罪行被諸神懲罰，命他推大岩石到山頂，大岩石到達山頂后，很自然地滾下山去，必須再重新推到山頂，這一再重複的過程沒有意義，沒有希望，是最可怕的刑罰。推上去又滾下來的岩石，象征着從虛無，絕望處，站立起來，再重新開始之人的宿命。沒有痛苦的話，世界就無法存在之史鐵生精神與提出非條理的現實就是人間現實之阿爾貝加繆的思想基臺以及一脈相同。加繆認為在非條理和不合理當中尋找真實人生的價值是有意義的。史鐵生的創作理念，如同‘非條理哲學’一般，認為不需要因為人生沒有意義就絕望或是斷念，反而應該像賦予不毛之地存在意義一般，永遠懷抱希望。史鐵生的小說以及類似作品‘西緒福斯神話’都指出與非條理現實作精神抵抗的過程，得到喜悅和希望的价值。

通過史鐵生小說‘障礙人題材’之形成背景，以及形成意義，探討作家的創作動機以及真實生命的意味。史鐵生在理想荒漠，重新構造‘理想之城’，在虛無的命運里，超越自己的宿命。所以他成了抵抗虛無和命運的英雄。面對障礙現實，並且打從內心地喜愛這樣的自己，這可以說是史鐵生‘過程論的理想主義’的精神。通過上述我們可以看到作家抵抗命運，帶着希望生活，超越并昇華所有現實痛苦之偉大精神力。

**關鍵詞：**史鐵生，西緒福斯，障礙意識，障礙人題材，宿命意識，過程論理想主義，超越

이 논문은 2009년 10월 28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